

계속된 전쟁으로 참어머님은 대구에서 피란살이를 시작했어요.

어느덧 학교 갈 나이가 되어 대구 초등학교에 다녔어요.

“김 선생님 반에 새로 온 여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 
잘한다면서요?”

“한학자 학생이요? 공부뿐이 아니에요.

수업 태도도 바르고, 친구들도 잘 도와주는 모범생이에요.”

“얼굴도 예쁘고, 성격도 좋고,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니

친구들이 많이 따르겠네요.”

“단연 인기가 최고지요.”





‘하나님의 딸, 하늘의 신부로 순수하게 잘 자라야 하는데.  
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구나!’

참어머님이 점점 더 예뻐지고 공부도 잘해서  
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어머니는 걱정이 깊어지셨어요.

“우리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자.”  
“제주도요?”  
“그래,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 
네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거다.”  
“예, 어머니.”

참어머님은 정든 학교와 친구들과  
헤어지는 게 서운했지만,  
어머니 말씀에 따라 초등학교  
5학년 때 대구를 떠났어요.



참어머님은 제주도로 내려가 신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되었어요.  
전학해서도 여전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, 행동이 바른 모범생으로 지냈지요.

“학자야, 우리 철수네 집에 모여서 같이 놀기로 했는데 너도 가자!”  
“괜찮아, 난 집에 가야 해. 재미있게 놀아.”

참어머님은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왔어요.  
어머니와 함께 제주도까지 내려온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.

“할머니! 언제 오셨어요?”

참어머님이 집에 오니 외할머니가 와 계셨어요.

“너희가 어찌 지내나 궁금해서 왔지.”

외할머니는 참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.

“학자야,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.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하신다.”  
“네, 할머니. 할머니, 어머니께서 항상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,  
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요.”

참어머님은 늘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,  
하나님의 딸로 바르게 자랄 것을 다짐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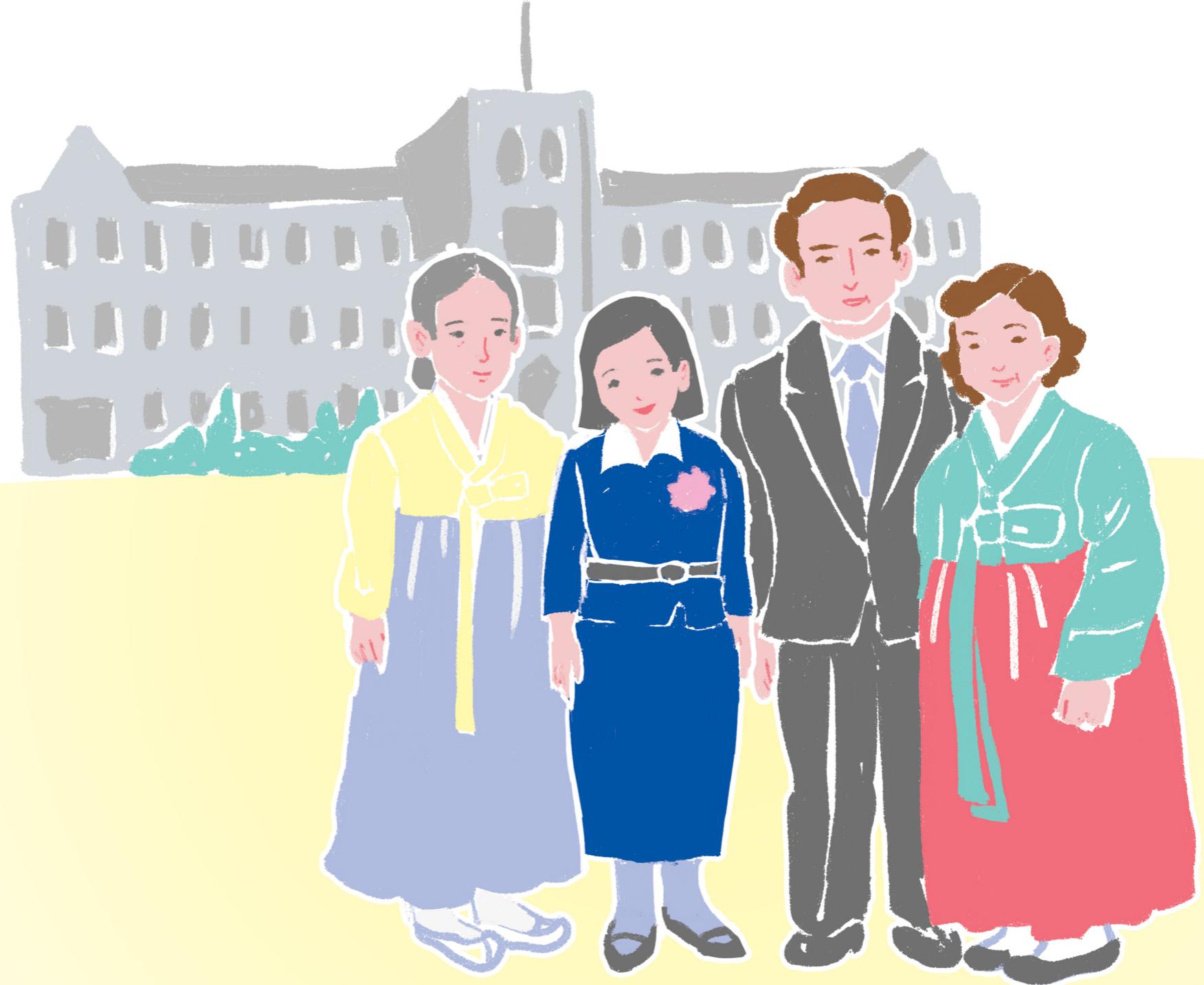




참어머님은 6학년이 되었을 때  
외삼촌이 계시는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.  
참어머님은 전쟁을 겪어 내며 서울, 대구, 제주도, 춘천  
네 곳의 초등학교를 옮겨 다녔어요.

“위 학생은 행동이 바르고,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,  
특히 성적이 우수하여 이 상장을 줍니다.”  
“짝짝짝짝!”  
“학자야, 졸업을 축하한다.”  
“우등상까지 받고 정말 대견하구나.”

어머니, 할머니, 외삼촌 모두  
참어머님의 초등학교 졸업을 기뻐해 주셨어요.  
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순수하면서도 강한 신앙심으로  
춘천 봉의초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된 거예요.



참어머님은 서울에 있는 성정 여자 중학교에 입학했어요.

“학자야, 이번에도 또 1등 했다면서?”

“이번이 몇 번째 우등상이야?”

“너는 공부 잘해서 정말 좋겠다.”

중학생이 된 참어머님은 늘 학급 최고 성적으로  
매번 우등상을 받곤 했어요.



“학자야, 이 그림 네가 그린 거니?”

“네, 선생님.”

“그림을 꽤 잘 그리는구나. 소질이 있어.”

“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어요.”

참어머님은 공부하는 틈틈이 그림도 곧잘 그렸어요.

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학교 미술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지요.

